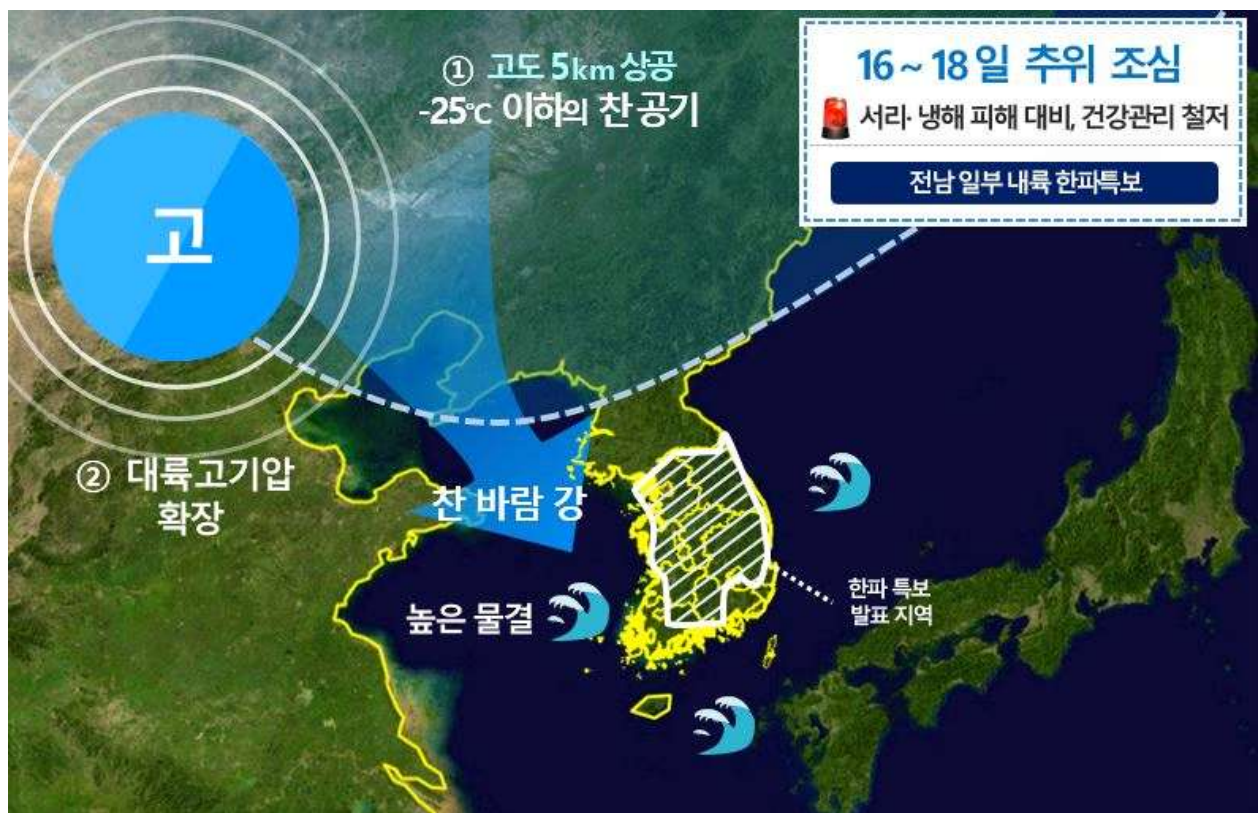
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0. 14.(목) 11:3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장 박수희 사무관 이덕배	전화번호	062-720-0332

17일(일) 올해 가을 첫 한파주의보

- 17일 아침 기온 전남 일부 내륙 3℃ 이하로 낮은 기온
- 16일부터 추워져 17일 아침 전일 대비 10℃ 이상 낮아 첫 한파특보
- 16일부터 강한 바람 동반, 체감온도 2~6℃ 더 낮아져 강 추위



[10월 17일 기압계 모식도]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김금란)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6일(토)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 가을 첫 한파특보¹⁾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. 급격히 기온이 낮아져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전하는 한편,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, 상세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.

[추위 전망]

- 광주지방기상청은 ① 고도 약 5km 상공에서는 북서쪽으로부터 -25℃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고, ② 지상에서는 대륙의 찬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하며, 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(17일 발효)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특히, 최근 한반도 주변에 머무르던 따뜻한 고기압으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가운데,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어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2~6℃ 더 낮아 실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- 17일(일) 광주·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이 전일(16일)보다 10℃ 내외로 급격히 내려가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,

1) 한파특보 : 주의보(경보) 기준

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(15℃)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
② 아침 최저기온이 -12℃(-15℃)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(광범위한 지역)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
- 또한, 일부 내륙에는 첫 서리가 관측되겠고,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.
 -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번 추위는 18일(월)까지 이어지겠고, 20일(수)경에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추위질 가능성이 있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중기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.

[강수 전망]

-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기존에 머물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비구름이 만들어지겠고, 이 영향으로 15일(금) 오후에 광주·전남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전망하였다.
- 이후 비는 16일 오전에 그치겠다고 분석하였다.
 - 또한, 찬 공기가 다시 밀려오는 19일(화)경, 북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광주·전남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동네예보와 중기예보를 꼭 참고하길 당부하였다.

<예상 강수량(15~16일)>

- 광주, 전라남도 : 5~20mm

[강풍 및 풍랑 전망]

- (강풍) 16일 새벽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35~60km/h (10~16m/s), 순간풍속 70km/h(20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35~55km/h(10~15m/s)로 강하게 불면서 17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겠다고 분석하였다.

- (파고) 16일 새벽부터 서해남부면바다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대 5m이상으로 높아지며,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,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